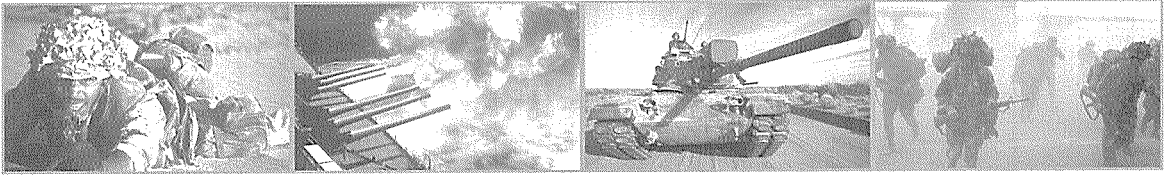


#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산업영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 ■ ■ 미-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라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함께 「산업동향 점검반」을 가동하여 주요 업종별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으로 해결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KIET와 공동으로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쟁이 1개월 내로 단기에 종료될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국내산업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에서 對 중동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서 수출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유가급등에 따른 원료(납사)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에 일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후복구에 따른 중동 특수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국내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 ■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조기집행 및 기업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에너지절약 대책을 통해 유가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 해소에 주력한다.
  
- ■ ■ 그러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동시에 수출·내수·투자가 동반 침체되는 상황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산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 일반기계, 전자업종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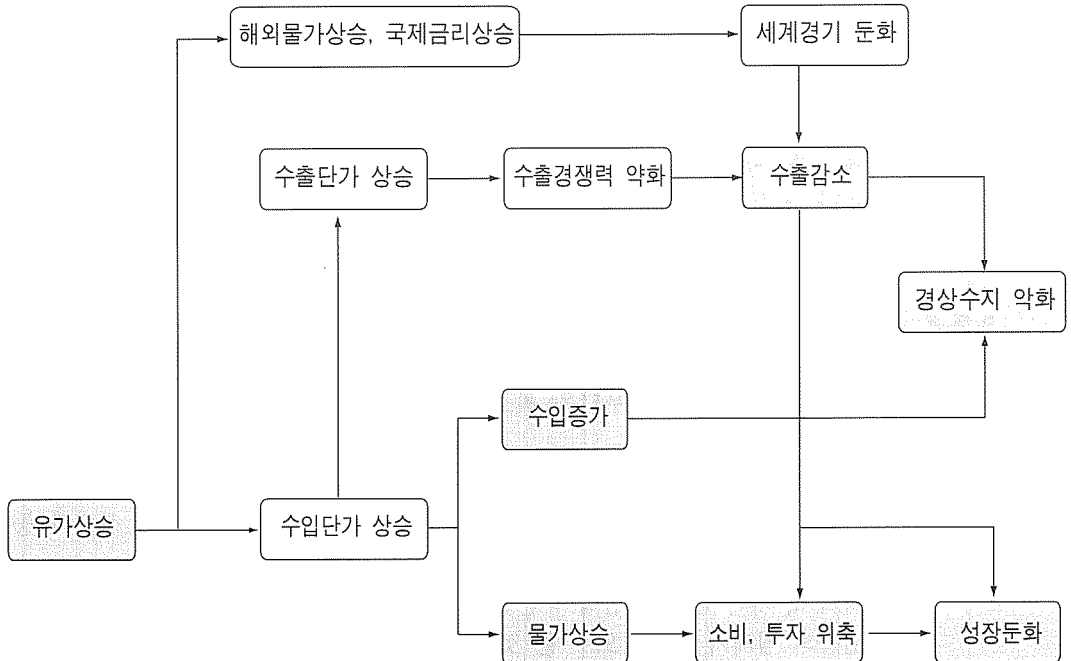


■ ■ ■

이에 대해서 우선 수출금융·보험지원 등 수출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특소세 한시적 인하, 설비투자 세제감면 확대, 수입원자재 관세인하 등 산업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입국과의 통상마찰 대응 강화와 대체 수출시장 개척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 효과



주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 업종   | 영향  | 대책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대중동수출('02년) : 78천대(5.1%)</li> <li>※ 대이라크수출('02) : 2,584대</li> <li>· 중장기전 :</li> <li>- 수출 : 155→140만대수준(전년대비△7.5%)</li> <li>- 내수 : 165→130만대수준(전년대비△2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차 국내시판 조기 허용 및 경차배기량 확대 (800→1,000cc)</li> <li>· 경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자동차세 감면 (80→18원/cc)</li> <li>· 특소세 한시적 인하, 특소세 개편 조기 시행 (배기량별 3→2단계)</li> </ul>            |
|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중장기전 :</li> <li>- 선박 발주량 감소 전망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li> <li>※ 다만, 원유저장용 초대형유조선, 석유가스 시추/생산 선박 수요 증가는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투자회사 세제지원확대</li> <li>※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 추진</li> <li>· 통상마찰 대응 강화</li> </ul>   |
| 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대중동수출비중('02년) : 3.5%</li> <li>※ 운임, 보험료 상승 예상</li> <li>· 중장기전 :</li> <li>- 수출 : 700→660억불수준</li> <li>- 내수 : 72→68조원수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li> <li>- 디지털 TV(PDP, 프로젝션), 에어컨 등</li> <li>· PC 조기교체 유도</li> <li>- 관공서, 교육기관 등</li> </ul>  |
|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중장기전 :</li> <li>- 반도체 경기 회복지연 (금년하반기→'04년 하반기)</li> <li>※ 대미수출비중 : 약25%</li> <li>- 당초예상 수출액에 비해 월2~3억불 감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감면제도 대상확대</li> <li>※ 자가수리용부분품, 쿼츠, 리드프레임 등</li> <li>· PC메모리 업그레이드 유도</li> <li>- 관공서, 교육기관 등</li> <li>· 중국, 동남아, 유럽 등 대체수출시장 적극 개척</li> </ul>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주에너지원 : 석탄, LNG 등</li> <li>· 중장기전 :</li> <li>- 철강재 소비둔화, 가격하락</li> <li>※ 戰後 복구작업이 본격화 될 경우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도모</li> <li>- 미, 일, 중 등 철강 주 수요국간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강화</li> <li>· 산업체 필수사용 우선 지원</li> </ul>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주원료인 납사가격 상승으로 생산 일부 차질</li> <li>※ 유가10%↑ ⇒ 원가12%↑(중화학공업 평균0.73%)</li> <li>· 장기전 : 연관 산업의 소비위축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감소 예상</li> <li>- 제조원가 상승 압박에 의한 체산성 악화로 가동률 감축예상</li> <li>※ 세계적공급과잉으로 원자재가격상승분이 제품가격 반영에 한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등 유가안정화 대책 필요</li> <li>·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납사수입 관세 무세화</li> <li>· 안정적인 납사확보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및 업체간 공동구매 확대</li> <li>· 산업용 부탄의 특소세인하(가정용수준)로 연료비 부담경감</li> </ul> |
| 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소폭의 수출감소 예상 (美△0.4억불, UAE△0.3억불)</li> <li>※ 대중동수출비중 : 7.3%</li> <li>· 장기전 : 중동 지역(UAE, 두바이)과 대미 수출에 악영향</li> <li>- 원료가격 상승으로 화섬업종의 체산성 악화 우려</li> <li>- 수출5.5억불(美3.2억불, UAE2.2억불)감소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연장 및 추가인하</li> <li>· 중국, 동남아 등 대체수출시장 적극 개척</li> </ul>   |
| 일반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전 : 영향 미미</li> <li>※ 대중동수출비중 : 6.4%(이라크0.02%, 2백만불 이하)</li> <li>· 중장기전 : 플랜트 관련 기계류 수출 감소 예상</li> <li>- 수입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내수기계가격 상승 및 수출체산성 악화 예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 확대</li> <li>· 기업의 공동수입원자재에 대한 공동구매 추진</li> <li>· 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 강화</li> </ul>  |